

충청남도 해양관광의 발전방향

김영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주5일 근무제 도입, 대체 휴일제 도입 등 지속적으로 자유재량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관광 수요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관광 이동총량은 3.8억일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활동추구형, 자기계발형 등 다양한 관광행태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해양관광 활동은 레저선박과 조정면허 취득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해양수산부가 2014년 발표한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관광은 현재 국민관광 활동의 50%에서 2023년 6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연 4.9억일이라는 국민해양관광 이동총량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해양관광 활성화 지원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 차원의 해양관광 시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관점 보다는 기존 관광개발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 독립된 지구형 개발 위주, 하드웨어 시설 중시, 지역사회와 단절된 고립형 관광개발, 다양한 활동기반시설 제공 미흡 등이 여전하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난개발, 관광시설 수익성 저하, 부정적 지역관광개발 효과 발생 등이 우려된다. 관광시장과 공급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해양관광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조감하고 이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지자체 차원에서 요구된다.

우리나라 해양관광 발전 방향

우리나라는 해외의 해양관광이 활성화된 국가와는 다른 해양관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관광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가장 큰 제약점은 계절성이다. 해양관광활동은 일정한 수심과 파도, 기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여 여름철에 해양활동이 집중된다. 우리나라 해수욕장은 일반적으로 2개월간 운영되는데 이외의 기간에는 친수활동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서해안에 발달된 갯벌은 생태관광의 잠재성

은 크나 친수활동에는 제약조건이 된다. 우리나라 수역의 또 다른 특성은 어촌과 어항이 밀집하여 해양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육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수상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해양관광이 여름철에 집중되다 보니 관광기반시설 수용력이 부족해지고 서비스가 저하되는 문제를 낳는다. 여름 한철에는 숙박시설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바가지요금이 난무하게 된다. 관광수요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관광사업자의 수익성을 낮게 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부진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해양관광 시장의 편중성은 기간 뿐만 아니라 활동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해양관광 활동은 해수욕이 전체 활동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및 시설이 제공되지 못한 측면도 있으나, 계절성과도 연관이 있다. 공간적으로는 동해안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수요가 집중되었으나 서남해안으로 분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 휴가철의 분산과 연계관광 활성화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관광의 특성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양관광 정책영역은 기존 해수욕장 등 해변에서 해상과 해중 등으로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친수활동 증가라는 해양관광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해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 위주의 기반시설 개발과 더불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정책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독립적 지구에서 어촌·어항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책 영역 확대에 따라, 기존 관광 행정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 행정부처인 해양수산부 외에 다양한 부처에서 해양관광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관광의 자원, 시장, 정책적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발전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발전방향은 지속가능성, 지역중심성, 산업기반성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 개발 및 보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점형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고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지양하며 개발지역은 고밀도 개발이 기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독특하고 쾌적한 해안경관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 경관, 환경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 조례 등을 통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관광개발의 계절성을 극복하고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내륙과의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연계 관광자원과 코스를 개발함으로써 해안 개발 압력을 저감시키고 공급 과잉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해양관광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관광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어촌·어항 중심의 관광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어촌·어항은 문화 체험과 먹거리·살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광목적지로서 잠재력이 높다. 어촌·어항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체인 어민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관광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외지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안에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발전모델이 해양관광의 발전기조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셋째, 해양관광수요를 지속 창출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을 동반 육성하여야 한다. 해양관광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양관광 활동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양관광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마리나, 해양레저센터 등 해양레저스포츠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배후 단지 등과 연계한 복합적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해양관광은 기반시설과 함께 선박, 용품 등 관련 산업이 동반 발전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서비스산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충청남도 해양관광 발전 방향

충남에서도 해양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남의 해양관광 발전 기반은 기반시설, 상품 개발, 내적 역량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충남은 마리나 등 해양체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해양관광 활동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등 거점형 관광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충남이 보유한 해양관광축제, 어촌체험마을, 섬 등 잠재력 있는 해양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투입이 부족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관광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 충남 해양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충남이 가지고 있는 대표자원인 해수욕장을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전, 무창포, 보령 해수욕장을 리모델링과 사계절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하여 연중 이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 해수욕장 내 기존 개발지구에 대한 리모델링은 경관 개선과 해양체험시설 신규 도입, 공연 등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해수욕장은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공편익시설 디자인을 정비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으로 가꾸어야 한다. 경관녹지를 대폭 확충하고 청결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노력도 요구된다.

둘째, 지속가능한 섬 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 충남은 외연도 가고싶은 섬과 장고도 명품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바 있다. 이러한 모델들이 난지도, 원산도 등 충남지역의 타 섬에도 확산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섬관광 활성화는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역사회의 추진의지가 높은 섬에 대해 선별적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 참여형 계획을 통하여 섬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내 개발 가능하고 경관 가치가 높은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하고 거리별, 자연여건별 잠재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다양한 해양테저스포츠 기반시설 및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합형 해양테저스포츠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기추진되어 왔던 안면도 등의 민자유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적극 강구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보령, 석문 등 복합 마리나항만 조성도 주거시설 도입 및 이벤트 개최 등 차별화를 모색하여 조기에 개발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해양관광테저스포츠와 관련한 축제 및 이벤트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해양관광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최근 요트, 자전거, 걷기 등 레포츠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축제 및 이벤트 개최는 기반시설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넷째,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어촌·어항을 명품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문화적 품격을 디하여 차별화된 매력성을 창출해야 한다. 어촌·어항은 6차산업 활성화의 적지로서 주변지역에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 어촌·어항이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진흥협의체와 같은 지역사회 역량 강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사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관광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